



남원 덕과면 이장협의회, 나눔으로 행복 전달

남원시 덕과면이장협의회(회장 정대현)는 11일, 나눔으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마을 어르신들을 가가호호 찾아뵙고 무더위를 이겨낼 감비탕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연일 지속된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드것으로, 이번 기부행사를 통해 덕과면이장협의회는 나눔을 실천하고 주위에 귀감이 되는 모범 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졌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돌보고 함께 생활공동체를 다듬어 가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동준 덕과면장은 "이장협의회를 응원하고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월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교육

남원시 인월면은 11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및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교육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예방, 건강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인월면은 입지리 참여자들 대부분이 건강과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로 구성되어있어 하절기 동안에는 활동일정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왕길성 인월면장은 "어르신들 덕분에 인월면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초록나무협동조합 업무협약

남원시 노암동(동장 임점숙)은 11일, 초록나무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업무협약을 통해 야외용 의자 5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노암동과 조합은 이날 지역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공방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탁된 의자는 명지아파트와 한파우일에 설치해 주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은 취약계층과 다문화 여성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사회활동에 관심이 있는 목공 체험장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방치된 유기견 주인 찾아 캐나다로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서 구조... 새 주인 만나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에서 구조된 유기견이 캐나다로 입양돼 새로운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사연이 알려지며 진지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진안군 동물보호단체 위허그(we hug) 김주영 대표는 누군가에게서 버려진 유기견 브리타니 스파넬 견종의 암리를 구조해 보호하다 캐나다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 입양했다. 암리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아직도 지역에서는 보신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조되지 않을 경우 암리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온갖 위험에 노출된 데다 잘 먹지도 못하고 초 최한 삶을 살며 떠돌아다니던 암리는 한 주인의 신고로 구조의 손길이 닿았던 것이다. 보호소에서 지내던 암리는 동물보호단체의 소식을 접한 캐나다에서 직접 진안까지 방문해 지난달 22일 오후 4시 그렇게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암리는 유기견이 아닌 가족이 생긴 것이다. 암리를 가족으로 입양한 캐나다 가족은 진안 동물보호단체 위허그 김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암리는 정말 멋진 강아지예요." "적응을 잘 하고 있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식구가 추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6살, 4살된 딸들이 있는데 딸들도 암리와 완전 사랑에 빠졌고 물건을 물어오게 하는 법을 가르쳐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4개월짜리 검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 로지가 있는데 암리와 로지도 서로 몹시 좋아해요. 제 생각엔 로지가 있어서 암리가 적응을 더 빨리 한 것 같아요." "제 남편은 뛰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매일 조깅하러 갈 때 암리를 데리고 나가고 가족 산책을 하루에 두 번씩 다니고 있어요. 아바 아시다 시피 암리는 새와 다람쥐를 정말 좋아해요." "암리는 파리를 정말 잘 잡아요." /진안=우태만 기자



"암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다시한번 감사해요." 이 같은 편지를 받은 김 대표는 진안에서 동물보호활동을 지난 4월부터 해오고 있으며 김 대표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은 현재 보호소에 19마리가 있다. 오는 9월14일에는 저머리 포인터 견종의 쿠쿠가 미국 시애틀로 입양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동물보호활동을 의지에서 진안으로 들어와 배우자와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과 함께 단 3명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진안에서 대형견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A음식점과 도축행위를 막고 폐쇄하며 31마리를 구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반려견들이 학대되고 버려져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며 "동물이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사랑으로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개최

덕치면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위원회 1차 회의를 지난 1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는 조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위원, 조현선 덕치면장, 군청 및 농어촌공사 관계자,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예비계획을 설명하고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및 건의 사항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으로 하고 설명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 소재지 등 배후 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덕치면 소재지 일원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확충할 예정이며,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소방서,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3단계 홍보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3단계' 홍보에 나섰다. 실제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4~5분이 경과하면 뇌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중단되어 심각한 뇌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심정지 발생의 60% 이상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므로 최초 목격자인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하다. 심폐소생술 1단계는 △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하기, 2단계는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3단계는 △각자 긴 손으로 가슴 정중앙(복뼈뼈 아래쪽 1/2 지점) 압박하기 순이다. 강동일 서장은 "위급상황 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3단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영환 기자

전주교대 총동창회, 우수 학생 4명에 장학금 전달

전주교대 총동창회(회장 문홍근)는 11일 대학 총장실에서 우수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재단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준수한 학생 가운데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우수 학생을 선발, 1인당 70만원씩 총 2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문홍근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강일순 장학재단 이사, 최경희 국어교육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문홍근 총동창회장은 "재망스런 후배들을 뜻 깊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기쁘고, 모교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면서 "지금처럼 학업을 정진해 초등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병준 총장은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총동창회에 감사를 드리며,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 훌륭히 성장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대 총동창회는 1989년 장학재단을 설립, 현재까지 8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